

종합

유통·상생법안  
분리 처리키로

여야는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을 올해 정기국회 기간내 모두 처리하되 유통법을 먼저 처리키로 합의했다.

유통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상생법안은 12월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 이근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날 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는 다만 상생법의 처리까지 재래시장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상생법의 취지를 살리는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이달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상생법 처리를 늦춤에 따라 SSM개정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유통법과 상생법을 분리해 처리하는 것은 서민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농성동 옛 전남지사 공관  
광주시, 도서관 건립 검토

광주시는 서구 농성동 옛 전남도지사 공관에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2일 시민과 대화에서 농성동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 건의를 받고 "옛 도지사 공관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며 "공관 안에 있는 상록미술관 건물을 도서관 건물로 전환할지, 옛 공관부지 인근 일부 사유지를 사들여 도서관을 별도로 건립할지는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해당 구의원과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이 기획단을 구성해 도서관 규모와 위치를 정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농성동 주민들은 "구도심은 도서관, 문화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해 더욱 쇠퇴하고 있다"며 "옛 전남도지사 공관에 도서관을 건립하면 미술관과 함께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민 10명 중 6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성

광주시민 10명 중 6명가량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찬성하면서도 2호선이 건설되면 이용하겠다는 의사는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공공데이터센터가 지난 11일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광주시민 522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5%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찬성한다고 대답했고, 37.9%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산구의 찬성비율이 71%로 5개 자치구에서 가장 높았다.

건설방식과 관련해서는 지하 전철이 59.3%로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지상 고가(15.0%), 지상 전철(14.3%), 잘 모르겠다(11.3%) 순이었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4.8%만 "이용할 것 같다"고 답했고, 36.2%는 "이용할 일이 없다", 31.8%는 "어쩌다 한 번 이용할 것 같다"고 밝히는 등 2호선 건설에 찬성하는 정도에 비하면 이용 의향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주말·휴일 막판 부동산을 잡아라

민주 손학규 VS 비민주 유시민 후보지원 '광주 혈투'

10·27 서구청장 재선거 D-4

혼전 양상을 띠고 있는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의 승부처가 될 마지막 주말과 휴일 각 정당과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주말인 23일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정세균·이인영 최고위원, 최영희·김상희 의원 등이 대거 광주를 방문해 김선옥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유권자들을 성별·연령별로 나눠 공략할 예정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정세균 최고위원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세력을 대상으로, 이인영 최고위원은 386으로 상징되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유세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원인 최영희·김상희 의원은 서민과 여성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휴일인 24일에는 신안 출신인 천정배 최고위원이, 정동영 최고위원은 오는 25일 광주를 찾아 지지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비민주 야 4당 단일후보인 국민참여당 서대석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대표들도 광주로 총출동해 세몰이에 나선다.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22일 광주를 방문, 풍암지구와 금호지구, 염주동 일대 먹자골목에 들며 젊은층의 유권자들과 즉석 만남을 갖고 서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23일에는 이희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등이 함께 하는 대규모 릴레이 유세를 잇따라 열고, 부동산 잡기에 나섰다.

무소속 후보들의 행보도 빨라졌다.

김중식 후보는 하루 두 차례 유세와 함께 골목 곳곳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다. 휴일인 24일에는 교회와 성당을 돌며 한 표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 후보 캠프는 조직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서구 전역에서 틀림이 거리 청소를 실시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하룻길 안전지킴이 활동 등의 공익적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무소속 박근우 후보는 지난 21일 광주 새시민연합의 지지 선언으로 선거운동에 탄력을 받고 있다. '살아 있는 주인 정신을 발휘하는 시민'을 표방한 새시민연합의 지지 선언에는 공동대표인 김명현 전 조선대 교수를 비롯한 회원 20여명과 지지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후보는 23~24일에는 지지자와 함께 거리유세 등을 펼치며 막판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구직자 물린 광산취업박람회

22일 광주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0 광산구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희망업체를 찾아가 면접을 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C& 비리 '檢風'... 민주 초긴장

DJ·노무현 정부때 급성장... 호남 중진의원 연루설

민주 "아권 탄압 정략 수사... 정조준편 정면 대응"

검찰의 대기업 수사가 한화화과 태광그룹에서 전 정권 때 몸집을 불린 호남기업인 C&그룹으로 확대하자 민주당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C&그룹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급성장했고 창업주인 임병석 회장이 영광 출신이라는 점에서 당시 여러 실세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화화과 태광그룹에 대한 수사도 지난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경계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2일 "태광그룹 수사가 (태광이 급성장한) 2006년 이전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화그룹 수사의 핵심도 2002년 대한생병 인수 과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볼 때 정치인 상당수가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기업 내부보다는 외부 정치권과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인 것이다.

한나라당의 고위 관계자는 "현 대통령의 친한 친구(천신일 세종나모 회장)와 여당 사무총장을 지난 3선 의원(장광근 의원)까지 소환 대상이 된 판인데 아권의 거물이라고 그냥 넘어가겠느냐"고 예상했다.

때문에 민주당 분위기는 흥흥하다. 벌써부터 검찰과 당 안팎에서는 몇몇 전현직 호남 중진 의원들의 연루설이 떠돌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며 본격적 대응은 미루고 있지만 검

찰이 민주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실해지면 정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인 박주선 최고위원이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발언을 한 것도 검찰에 대한 견제로 해석된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수사는 기업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을 방지하고 아권을 탄압하기 위한 정략적 수사"라며 "특히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당대표에 대한 긍정적 보도가 나오자 이를 두려워해 야당 파과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은 그동안 수사 때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해 야권 정치인과 기업비리를 바게닝하려 했었고 이번에도 검찰은 편파수사의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 경각심과 경계심을 늦출 수 없으며 야당 탄압을 위한 수사로 결론이 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설

영암 F1 특수 '반짝'으로 끝나선 안 된다

광주·전남지역 서비스계가 '영암 F1'의 특수를 특별히 누리고 있다고 한다. 대회가 열리고 있는 목포 인근의 전남 서남권은 물론 광주지역의 숙박업소, 음식점 등이 몰려드는 국내외 손님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영암 F1'이 애초 기대했던 지역 이미지 제고와 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영암 F1 특수의 최대 수혜지역은 서킷의 배후도시인 목포 하당 신도심이다. 이곳 숙박업소와 음식점, 주점 등은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북적이고 있다. 특히 모텔 등 숙박업소의 경우 무안, 영암지역까지 예약률이 100%에 육박하고 광주지역 호텔도 이미 1년 전에 예약이 완료됐다. 목포의 유명 레스토랑과 와인바는 밀려드는 외국인으로 마치 유럽이나 미국에 온 착각이 들 정도로 붐빈다.

이 같은 서비스업계의 활황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많은 지역행사와 축제에 있었지만 '당일치기' 및 내국인 위주 관광에 그치지 일주여서 그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이와 비교하면 영암 F1은 전남 관광산업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F1의 특수가 대회기간 동안 '반짝'으로 끝나거나 특수업종에 제한돼선 안 된다. F1을 통해 광주·전남의 아름다운 풍광과 문화, 역사, 음식 등을 전 세계에 알려 국내외 관광객이 연중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야 F1이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영암 F1은 향후 7년간 개최된다. 지금부터 F1과 지역 관광산업을 연계할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가정 폭력이 부른 '황혼 부부의 비극'

평생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온 70대 할머니가 한 순간 울분을 참지 못하고 80대 남편을 살해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고흥경찰에 따르면 A씨(76)는 지난 16일 새벽 고흥군 남양면 자택에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 B씨(83)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년의 이같은 비극은 50년 넘게 이어진 남편의 구박과 폭력이 화근이었다. 이날도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버거 씨병을 앓고 있는 B씨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하자 이를 제지하던 할머니와 말다툼을 하게 됐고 결국 B씨가 할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끔찍한 상황까지 치달게 된 것이다.

경찰에서 할머니는 "이 나이를 먹도록 매를 맞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억울했다"며 "56년간 살면서 그다지 편한 날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더욱이 딸만

7명을 내리 낳자 "아들도 못 낳는다"며 모진 구박과 폭력을 당해야 했다. 어렵살이 마흔다섯의 나이에 아들을 낳았지만 몸매에 뺨 맞은 폭력 습성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노인 학대 및 가정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노인 학대 등과 관련해 상담기관에 접수된 건수만 보더라도 4500여건에 달하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의 14%가 배우자 등에게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 학대와 가정 폭력문제를 구체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노인 상담기관 확대와 폭력예방교실 운영, 정서 함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복지 향상을 통한 노인 보호대책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김치문화축제 오늘 개막

유정복 장관 '김치 세계화' 선언

제17회 세계김치문화축제가 23일 개막해 광주 중의공원 일대에서 27일까지 열린다. '천년의 맛, 세계속으로!'를 주제로, 'Say kimchi'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김치문화 축제 개막식에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세계식량기구위원회(CODEX) 카렌 홀백 의장을 비롯해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한스 울리히 자이트 독일 대사, 토머스 쿠퍼 스위스 대사, 연평란 중국 총영사 등 국내외 귀빈이 참석한다.

유정복 장관은 개막식에서 '김치와 한식 세계화를 위한 광주선언'을 하며, 세계김치문화축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세계적인 요리

사 에드워드 권과 프랑스 출신 귀화 방송인 이다시 등이 행사장을 방문해 팬 사인회를 갖는다.

광주시는 축제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30분(23일은 오후 1시)에 중의공원 시립미술관 천인탑 앞에서 특산물 배추 1방(3포기)을 6000원에 선착순 1000명에 한해 판매한다.

24일엔 광주지역 일식요리사들이 참여하는 '김치 초밥왕 콘테스트'가, 25일엔 어린이와 외국인 등의 입맛에 맞는 김치 응용요리 선보이는 '김치퓨전요리 콘테스트'가, 그리고 26일엔 '올해의 김치명인 콘테스트'가 각각 열린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영산강 유람선 다니게 통신문 확장 검토"

심명필 4대강 부부장 밝혀

정부가 4대강 사업 구간인 영산강 유역에 비교적 큰 규모의 유람선이나 요트가 다닐 수 있도록 하구둑의 통신문(通航門)에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지역 발전을 위해 영산강을 관광·레저 중심지로 키우려면 황포돛배 뱃길을 복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영산강 하

류의 영산호와 영암호 두 곳 하구둑에 설치된 폭 6m가량의 통신문을 40m 수준으로 넓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22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영산강 하류의 통신문 확대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며 "전남도의 요청에 따라 통신문을 넓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Manseong) by Kim Jung-woo. Includes a cartoon illustration of a man and a woman talking, with text about a '부실' (deficient) woman's public works project.

'부실' 여수도시공사 청산절차 밟을 듯

부실 운영 지적을 받은 여수 도시공사가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2008년 이후 출범한 16개 지방 공기업 실태 조사 결과 15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태 개선을 요구하고 여수 도시공사에 대해 유일하게 조건부 청산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조건부 청산 권고와 함께 공사가 추진하기로 한 사업도 직영기업이나 전남개발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의 이런 결정은 현재 도시공사의 역할이 여수세계박람회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의 토지 수용 및 보상 역할을 대행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데 그치고 있는데다 2012년 박람회 이후 진행할 사업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여수도시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 설립돼 20여명의 직원들을 두고 박람회 관련 투자협약 사업으로 1300억 원 규모의 돌산 회담은 재건축 사업, 350억 규모의 해상 케이블카 사업, 1800억 원 규모의 돌산·진도 지구 호텔리조트사업을 비롯해 직접 사업으로 국비 340억 규모의 환승주차장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도시공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현섭 전 시장이 패하자 사장이 사표를 제출,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도시공사 출범 당시부터 대상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해 수익 창출이 불투명하고 토지 분양에 실패해 적자 운영 때문 그 손실을 주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도시공사 설립 폐지를 요구해 왔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kwangju.co.kr